

'소송' 동방3인 vs SM, 서류 추가제출..법원 결정은?

양승준 · 입력 2009. 9. 23. 09:48 · 수정 2009. 9. 23. 11:59



▲ 동방신기 믹키유천과 영웅재중 그리고 시아준수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믹키유천, 영웅재중, 시아준수 등 동방신기 멤버 3명과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간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류 제출이 마감 기일이 지나서도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월21일 열린 심리에서 당초 9월11일을 서류 제출 마감 기일로 정했다. 하지만 양측 변호인단은 마감 기일 이후에도 법원에 서류를 추가로 접수했다. SM 측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에 대한 참고자료를, 동방신기 세 멤버 측은 지난 17일 추가 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법원의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약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 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관계자는 "진행 사항 및 가처분 신청 관련 결정일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극도로 말을 아꼈다. 가처분 관련 결정이 이달 안에 나드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놨다. 가처분 신청의 특성상 법원이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리 오래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말이다.

한편,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멤버는 지난7월31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갈등을 빚고 있다.

▶ **관련기사** ◀

[☞ 'SM 갈등' 재중·유천, 日서 듀엣 활동 '지속'](#)

[☞ '동방신기는 원숭이가 아니다'...팬들, 신문광고로 SM 비판](#)

[☞ 동방신기 팬들, 소비자원에 'SM콘서트' 취소 피해구제신청](#)

[☞ 동방신기 팬, SM 상대로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 "SM타운 공연 취소 배상하라"...동방신기 팬들, SM에 내용증명 보내](#)

▶ HOT스타 연예화보 - 모바일 SPN1008 < [1008+nate/show/ez-i](#) > < 저작권자 © 함께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포털 이데일리 SPN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